

국제유가, 2030년 100달러 간다!

IMF, 중국·인디아 수요급증으로 공급부족 ... 2005년 52달러 상회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가 2030년까지 <고유가 쇼크>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4월7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국제유가가 2030년에는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지속적인 상승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과 인디아의 석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공급이 부족하고 증산여력이 한계에 달해 유가 변동성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30년 국제유가는 배럴당 67-96달러, 2005년 평균 유가는 52.23달러(WTI 기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가 2004년 9월 예측한 2005년 평균 유가는 37.25달러였다.

특히, 중국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자동차가 크게 늘면서 2030년 원유 소비가 현재 미국 수준(하루 2000만배럴)과 같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세계 원유 수요는 2004년 하루 8240만배럴에서 2030년에는 1억3850만배럴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IMF는 고유가로 2005년 경제성장률이 0.25-0.5%p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미국 에너지부는 2005년과 2006년 국제유가가 평균 50달러 이상에서 움직일 것으로 4월7일 전망했다.

<화학저널 2005/04/11>